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8. 17.(월) 15:2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2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조정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제40차 및 제41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공영방송 KBS,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 혹은 임명을 했고, 오늘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작지만 저희 위원회 내에서 계속 파열음이 났었고, 또 일부 회의가 연기되는 등 파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안건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가능하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주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KBS 이사에 대한 추천,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을 위한 인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재홍 위원님과 저는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고 의결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선 결과에 대해 여전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조차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마무리된 것은 유감입니다. 김재홍 위원님과 저는 인선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3대 기준으로 전례가 없는 3연임 금지, 정파적 나눠 먹기 금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배제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선 결과를 보면 저희가 제시한 조건 가운데 하나도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된 이사 내정자 면면을 보면 저희가 요구한 인선 원칙과 기준, 협의 요구를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지마 인사로 향후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공정성 구현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인 KBS마저 MBC처럼 정치적·이념적 싸움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저희 방통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

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3연임 금지입니다.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출범한 1988년 이후 지난 37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 3연임 금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전임 방송위원회 내에서도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 분이 초유의 3연임을 하게 되었고, 방문진 이사를 6년간 했던 한 분은 KBS 이사로 옮겨서 3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사의 관행도 일반의 통념도 무시한 정상적이지 못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임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3연임 혹은 9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시킨다면 이에 합당한 이유나 그 전에 이사를 하는 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포함하여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편성,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인사를 연임시켰다는 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의 평가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하나 같이 '이념 논쟁을 통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악화시키고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말로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전력이 있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면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면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법의 기본정신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인사들의 한 분 한 분을 보면 이러한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배치되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송의 공적책무와 공공성·공정성 실현이 방송통신위원회 기본책무라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기본책무를 포기했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선 절차상에 나타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상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에 대하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된 행정위원회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합의제 원칙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다수결의 논리를 앞세워 너무나 쉽게 합의제 원칙을 포기했습니다. 합의제 위원회 내부에서 토론과 타협이 없다면 장관 1명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독임제 부처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합의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제시했던 3가지 인사원칙이 수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 또한 나눠 먹기식 인사가 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방송법과 관련법에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합의제 위원회 성격상 보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이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그리고 감사와 같은 방송통신위원들이 협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사와 같은 사안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종합편성PP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다수결의 논리로 한다면 사실은 저희 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이사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입장을 밝히시고 앞으로 합의제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안전 심의를 해야 하니까 간단히 해 주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안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홍역을 치렀다고 할까,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 무산, 연기 하다가 그 중간에는 여권 추천 위원님들만으로 단독처리를 일반 안전 8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파행, 파탄, 파국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3번 무산시켰고 중간에 그런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거부만 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여했고 인선에 표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권추천 위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를 못 준 데 대해 무력감을 느끼면서 정말 회한이 맺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3년 전 2012년, 그 3년 전 2009년, 그 3년 전 2006년, 또 2003년, 2000년 인선할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는 그 전 방송위원회는 인선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나중에 함께 발표했습니다. 제3기 방통위만 유일하게 인선의 기준, 원칙이 없었고 명단만 배포했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인선을 했다'고 발표하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날 있었던 단독처리, 아무리 우리가 화학적 결합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더 큰 공영방송 이사 인선 파동에 묻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거부하고 불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여서 끝으로 그때 회의에서도 제안했고,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힌 제도개선안 4가지를 추진한다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언질을 하셨습니다. 일부 유보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함께 해 주기를 끝으로 제안하고 부탁드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발전은 없습니다. 정파간 나눠 먹기식, 이것은 여도 야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어떤 사장을 내리꼴건 낙하산식으로 보내건 간에 공영방송은 이제는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는 몸부림을 쳤는데 정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표결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저희는 두고두고 회한을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의 거의 같은 의견과 주장을 오늘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어서 저는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인선 기준과 원칙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번에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했고, 아까 또 과거에는 인선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과거의 자료를 봐도 이번에 과거와 다르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행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도 휴가를 중간에 취소하고 오셔서, 논의에 참여하셨고, 위원장님도 또 휴가를 반납하시고 참여하시면서 저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 부분만 있을 뿐이지, 그 중간 과정이나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독립적인 수행도 말씀하셨고 외부의 간섭,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저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급적 최대한 모든 위원님들 간 의견 존중 하에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를 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부 기관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이 과정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특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해서 토론 내지는 연구해 나가는 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냥 이렇게 발목잡기식, 비판주의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사전 협의를 했더라면 조금의 변화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명직,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더라도 우리가 추천한 대로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임명권자로서 그쪽의 요구일지 희망일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MBC 방문진 이사, 감사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권자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내부의 상임위원끼리 그것만이라도 협의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진통이 있었고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협의를 하자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다거나 하는 요청, 요구와 거부만 있었지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십수년간 제5기, 제6기에 걸친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는 무엇 하러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발표했겠습니까? 그것은 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법 말고 시행령이나 규칙에 해당하는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고유의 인선 원칙과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기준은 투명의 원칙과 그리고 각계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직능, 지역, 세대,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인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야가 마련한 명단을 방통위 내부에서 아무런 스크린 없이 모아놓고 보니까 각계 각 분야의 대표성이라고 할까, 균형은 깨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MBC 방문진 9명 이사와 1명의 감사 10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직능적으로도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사전 협의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인선의 기준과 원칙은 마련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거부된 데 대해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법에 있는 대로만 하자, 법 아래에 시행령은 뭐 하러 두는 것입니까?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한 기본규칙과 기준이나 원칙도 각 위원회마다 마련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미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재임 동안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음번에라도 이번에 유일무이하게 마련하지 못한 인선의 기준과 원칙은 사전협의를 따라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인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는 고심참담한 끝에 끝까지 파행시킬 수만은 없어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고 회의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제기를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저희에게 부여된 책무를 잘하기 위해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인선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부단히 말씀드리고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놀랐던 것이 인사안, 최종적으로 인선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봤습니다. 혹시 이기주 위원님, 이 구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권 추천 KBS 일곱 분, MBC 여섯 분 중에 자사 출신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전체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권 출신 이사들 중에서요. KBS 일곱 분, MBC 여섯 분 중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기억으로는 KBS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KBS 딱 한 분입니다. MBC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권에서 야측에서 추천할 인사를 아주 배려를 많이 하셔서 야권에서 두 분 추천했으니까 방문진은 한 분도 추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은 전제가 MBC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시청자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률전문가 있지요? 그런데 회계전문가 있습니까? 방송전문가 있습니까? 이렇게 각계 대표성입니다. 이사를 구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각계 대표성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입장을 밝히실 것이니까 제가 2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항상, 심지어 심사위원회를 꾸릴 때마저도 관행을 상당히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37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전임 방송위원회에서까지 지켰던 3연임의 제한,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MBC 방문진 이사하다가 KBS로 갔기 때문에 3연임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과연 공영방송사 이사를 9년 동안 지켜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느냐?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전임 위원들께서 지켜왔던 관행을 그렇게 깬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을 수용 못 하더라도 인사에 있어서는 철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특히 공영방송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인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한 철학,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위원으로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부여한 그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의 공적책무 구현, 공정성, 공공성 구현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인선에 대한 철학이나 공영방송에 대해서, 도대체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능하면 제 의견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견을 또 물어 보시니까 제가 한두 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도 미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계획이 재허가·재승인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아직 법에 위임이 없어서 고시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미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인선의 기준과 원칙은 현재 법에 어떠한 어떠한 것을 고려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선의 기

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늦어도 공모하기 전, 또는 늦어도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원조회를 하기 위한 대상을 고를 때, 얼마든지 그러한 인선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자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나중에 소위 언론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이 이사의 물망에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인선의 원칙 ‘3연임 곤란하다’ 또 ‘정파 나누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등등의 원칙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13일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선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인선의 기준과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인선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형식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고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얼마든지 인선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비록 하지 않더라도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과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에 관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철학이나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없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생각은 같으나 그 생각이 표출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안전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미디어크리에이트 (201-42-19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주)미디어크리에이트의 재허가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합니다. (주)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수행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붙임 1>과 같이 부과한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재허가일로부터 5년, 2015.8.22.부터 2020.8.21.까지로 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재허가를

신청한 (주)미디어크리에이트 법인의 재허가 여부와 재허가 조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금년 2월 17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만료 및 재허가 신청을 안내한바 있고, 5월 20일 재허가 신청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재허가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였고, <붙임>으로 심사위원회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요건 심사결과, (주)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 신청법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는 부적격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입니다. (주)미디어크리에이트는 5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획득했고, 총점은 82.075점을 획득하여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결과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 내용입니다. OBS에 지역민방 수준의 광고판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고, 지역민방간의 광고매출 배분 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 하되, 심사위원회 건의사항과 기존 미디어랩 허가 사례를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붙임 1>에 세부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광고합의를 갱신할 경우에도 종전의 합의서보다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가능한 한 불리하지 않게 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시장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 계획과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PP와 타PP를 차별하거나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특정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사업자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서 재허가 결과를 의결해 주시면 8월 18일까지 재허가 공문을 통보하고 재허가장을 8월 21일까지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재허가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제일 아랫단에 있는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에 미치는 행위 등 몇 가지 금지행위를 써놓았는데, 금지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디어렙상의 금지행위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미디어렙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종편이나 기존의 렙을 허가하거나 재허가할 때 동일하게 허가조건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허가조건에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행에 따라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법상에 있는 것과 또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미디어렙의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의미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다시 부과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보면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지역별 시장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한 문구를 제가 못 봤는데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서로 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새로운 배분 기준 마련이 어려워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이것은 (주)미디어크리에이티브가 재허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파료 배분 기준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마련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17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전파료를 포함한 광고매출 배분 기준을 연구하고 '19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광고시장 변화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이것이 방송사업자들 간에 오래된 갈등 사안 중의 하나인데 이 사안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사실은 2014년도에도 합의가 거의 될 수 있었는데 몇 개 사업자들이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이 된다면 초당 전파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에 대해 SBS와 지역민방 간의 배분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전파료 배분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파이가 커진다는 전제하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면 조금씩 양보를 하더라도 총량이 늘어나서 서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다음 조항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에 따르면 현재 개별 지역민방별로는 92%를 최소 지원하고, 민방전체 평균 97% 광고매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미디어크리에이트는 각 지역민방들에게 97%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방을 보장하고 있는 97%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지원규모인 92%에서 97% 사이에서 (주)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해당 중소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OBS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원 규모인 92%보다는 많되 97% 사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97%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재허가 조건을 보시면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해서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이면서 동시에 (주)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 자율 권고이면서도 어느 정도 이행계획을 담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 하셨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게 되도록 노력하고'가 아니고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등한 수준' 그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까지의 의미를 보면 너무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융통성이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중소지상파방송 OBS와 다른 지역지상파방송과의 차이가 몇 퍼센트입니까? 92%에서 97%입니까? 5%쯤 됩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OBS의 경우에는 최소 지원 규모인 92%만 보장하고 있고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광고 합의를 등을 준용해서 97% 수준까지 일부 방송사업자는 96점 몇 퍼센트 정도 되지만 97%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은 95% 이상은 되어야겠군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실무적으로는 95% 수준정도까지 보장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95%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OBS 문제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우리가 정책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OBS는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 대주주나 또는 외부에서 영입해 들어가는 사장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방송사업자들은 그런 방송사업을 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아니면 명예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책 지원을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OBS 방송사의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PD, 제작진들과 다른 직원들, 또 시청자들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책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모든 것을,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것

을 해결하려고 하면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가 살기 위해서 경영진을 정부와 친한 사람을 영입하든지, 아니면 대주주, 다른 2대 주주, 3대 주주를 평가가 좋지 않은 기업인을 영입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의 목표 대상은 어디까지나 그 방송사의 구성원과 시청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책 지원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임 사장과 경영진이 방송 외 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무처가 살펴봐서, 그러나 또 지역의 다른 민간 사업자들과 충돌하거나 경쟁관계에서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함께 살펴서 중소기업과 방송사의 지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표현에 대한 의미를 물으시거나 또는 재허가 조건과 관련된 중소기업과 방송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또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별표1)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별표2)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입니다. 미디어랩별 영업보고서 검증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금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지원규모를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 '10년부터 '14년까지 미디어랩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미디어랩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에는

12.3475%가 되겠고,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주)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경우에는 8.802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2는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5년간, '10년부터 '14년까지 지원대상 사업자인 지역·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미디어랩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9월 6일까지 행정예고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라서 회계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해 낸 수치들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정책적으로 가감한 것은 없는 것이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5분 폐회 】